

2020년 8월 1일 배포시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검역정책과 과 장 장재홍(044-201-2071), 사무관 이재명(2075) / 제공일: 8월 1일(총 2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## 호주산 가금·타조·가금육 수입금지 조치 - 호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H7N7형) 발생 -

### 《 주 요 내 용 》

- ◆ 농림축산식품부는 호주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H7N7형)가 발생하여 호주산 가금·타조·가금육 수입금지 조치(8.1.자)
- ◆ 올 상반기 중국, 대만 등 주변국과 유럽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발생지역에 대한 여행자제와 축산물을 휴대하여 국내 반입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

□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, 이하 농식품부)는 호주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HPAI)가 발생하여 호주산 가금(닭, 오리 등), 타조와 가금육의 수입을 8월 1일(토)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.

○ 이번 조치는 호주 농업부가 남부 빅토리아주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H7N7형 HPAI가 확인\*되었다고 7월 31일 세계동물보건기구(OIE)에 긴급보고한 것에 따른 것이다.

\* 호주 빅토리아주 레스브리지(Lethbridge) 소재 방사 산란계농장(43,500마리 사육)에서 HPAI가 발생, 해당 농장 사육 산란계 살처분 및 방역조치

-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▲살아있는 가금(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)  
▲가금 초생추(병아리) ▲가금종란, 식용란 ▲타조 ▲닭고기,  
오리고기 등 가금육·가금생산물 등이다.

※ 호주산 가금 및 가금육 수입현황('20년)

- 닭발 69건 1,622톤(가공일: '19.1.27.~'20.6.26.), 칠면조육 2건 2톤(가공일:  
'19.1.10.~12.24.), 앵무새 1건 15마리(검역완료일: 3.3.)

-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들어 중국, 대만 등 주변국과 유럽의 HPAI 발생\* 증가로 올 겨울 국내 발생 위험성이 커짐에 따라 HPAI 발생국에 대한 국경검역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, 해외여행객에게 해외 여행시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해외에서 축산물을 휴대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.

\* (주변국: 중국·대만·베트남 등) '19.상 52건 → '20.상 128건(2.5배)

\* (전세계) '19.상 149건 → '20.상 483건(3.2배) / (유럽) '19.상 10건 → '20.상 331건(33배)

- 아울러, 가금농가에서도 겨울철 대비 차단방역시설 사전점검 및 기본방역 준수사항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하였다.